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3)

역소은재(亦少恩哉)
역시 은덕을 적게 베푼 것이로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마땅한 방법만 있다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보통사람, 보복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공허한 한 때의 생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생사여탈(生死與奪)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둔 경쟁자의 사이에서 승리한다면 상대방을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주고 싶으면 주고 뺏고 싶으면 뺏을 수 있다. 정말로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힘을 갖는 것이다. 바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즉 대인(大人)이 된 것이다.

이러한 자리를 두고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막강한 자리, 대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대인(大人)이라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인이 되어서도 보통사람들이 상상한 일을 실현한다면 자리에 걸맞는 대인일까? 보통 사람일까?

이러한 은원(恩怨)관계에 있는 사람을 든다면 한대(漢代)의 선제(宣帝)와 광광(霍光)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제(武帝)시대부터 보아야 한다. 무제의 만년에 무고(巫蠱)의 화를 통하여 태자인 유거(劉據)는 자살을 하였고 무제가 죽을 때에는 겨우 8살 막은 아들인 유불능(劉弗能)에게 제위(帝位)를 물려주면서 광광(霍光)에게 고명(顧命)을 남겨 보필하게 하였다.

광광은 외손녀를 황후로 들여보내고 실제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소제(昭帝) 유불능은 제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죽었고, 광광은 무제의 손자인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황제로 옹립하였다. 그러나 유하가 참을에서 자기 세력을 200명이나 데리고 오자 광광은 이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도 모른다고 격정했는지, 황제로 옹립한지 27일 만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내쫓고 그 다음으로 모셔 온 사람이 무제의 증손자인 유병이(劉病已)이고 이 사람이 선제(宣帝)다.

유병이는 무고의 화를 입은 무제시절의 태자 유거의 손자이다. 이때에 그 할아버지는 자살을 했고 그의 부모(父母)도 모두 화를 입었으며, 그 자신도 강복(襁褓)에 싸인 채 감옥에 있다가 소용돌이가 조금 잠잠해져서야 겨우 구출되어 살아남게 되었다. 그 후에 이미 궁궐에 있을 수 없었던 조모(祖母) 사랑제(史良娣)에 의해 양육되었다. 명목은 황족(皇族)이어서 사황손(史皇孫)으로 불렸지만 서민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성장하였다.

성장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딸을 줄 사람이 없었는데, 궁형(宮刑)을 당한 허광한(許廣漢)이 그 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을 유병이와 결혼하도록 하락하여 겨우 결혼한 처지였다. 따라서 그에게 세력이란 있을 수 없었고, 또 그 때문에 광광은 유병이를 황제로 옹립한 것이다. 광광은 이러한 사람이라면 비록 황제가 되어도 자기의 권력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병이가 황제가 되자 자연스럽게 허광한의 딸은 황후가 되고, 그 사이에서는 이미 사내아이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광씨 세력은 다음 세대에는 광씨와 상관없는 사람이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염려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광광의 처 광顯(霍顯)은 허황후를 독살하고 자기의 딸을 황후로 앉혔다. 광씨들의 이러한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황제 유병이는 겨우 '내가 미천하였을 때에 쓰던 칼을 찾아라'는 명령을 내려서 미천하였을 때에 결혼한 허황후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선제 유병이에게 광광은 은원(恩怨)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유병이는 자기 힘으로 황제가 된 것이 아니고 세력이 없는 황실자손이라는 이유로 광광에게 선택되었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처가 그들에게 독살되는 역울함을 당하였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병이가 황제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광광이 죽었다. 물론 그 일당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적 역량이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결국 광씨 일당이 황후를 독살한 사건은 천하에 폭로되었고, 광씨 세력은 모조리 주멸되었다. 선제는 광씨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했고, 그들에게 품은 원한만을 갚은 셈이다. 선제는 광씨를 주멸한 다음에 자기가 미천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신세를 진 사람이 있다면 다 찾아서 은공에 보답하였는데 정작 자기를 황제로 옹립한 집안은 멸문(滅門)시킨 것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역사가 사마광은 광씨의 세력이 비록 많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자기를 황제로 옹립한 광광에게 제사지낼 사람조차 남기지 않았으니 '효선제는 역시 은혜를 적게 베푼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말하자면 대인(大人)의 금도(襟度)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적대세력을 풀어 안아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정치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냥 보통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돌아해보면 대인(大人)으로 꼽힐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419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와이로 가서 귀국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하인 정보부장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유명을 달리 하였다. 그 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가야 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수모를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감옥에 있다.

이제 이들의 죄 있다든가 없다든가 당연하다든가 억울하다든가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권력자들 가운데는 전직대통령을 안고 온 국민의 화해(和解)를 이끌어 나갈 금도를 가진 대인(大人)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화해란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받아들이 때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이니 단절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기는 요원(遙遠)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적폐(積弊)정산이란 스로건으로 적대세력을 처단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요즈음도 어디에도 상대를 풀어 안는 은혜를 베푸는 대인적 풍도를 가진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글프다.

고 권오선 고문 소장 안동권씨종보 창간호 등 대중회 이관



안동권씨종보 창간호(1974년 12월 1일)

대중회에서는 3월 10일 오후 권오선 총무국장(사무총장 직무대행)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고 권오선 고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남 권혁구(㈜부경글로벌 전무로부터 고 권오선 고문이 평생 소장하고 있던 안동권씨종보 창간호 등을 포함한 다량의 서적을 인수계했다.

이 중 안동권씨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호(사진)부터 2020년 12월 1일 546호까지 안동권씨대중회 봉투 22개에 넣어서 창간호부터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최초 안동권씨 족보인 성화보 영인본을 비롯하여 충

장공 권율(충장공권율장군기념사업회, 1987), 권문약사(2007 증보판), 찬란한 권문의 발자취(2010 개정증보판), 안동권씨종보 20년사, 안동권씨종보 10년사, 원류도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현재 1993년 2월 1일 212호부터 소장되어 있고 독자들이 대출실에서 구독하고자 하는 호수를 신청하면 누구든지 대출하여 구독할 수 있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안동권문의 역사적 사료인 창간호 안동권씨종보부터 211호까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杏家行清
年何人明
村處欲時
在斷節
牧魂雨
童俗紛
遙問路
拍酒上

辛丑清明節杜牧詩杏花村
鄭泰殷 謹書

清明時節雨紛紛 청명시절우분분
청명절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路上行人欲斷魂 노상행인욕단혼
길가는 나그네 애간장을 태우네
借問酒家何處在 차문주가하처재
주막이 어디 있는가 물으니
牧童遙指杏花村 목동요지행화촌
목동은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이다.
청명을 맞아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근서謹書

2021年 3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2. 25 ~ 3. 29 총 납부자 152명
지사지국 5곳

(이름순)												(단위:원)	
권건식(서울금천) 30,000	권도갑(익산) 30,000	권병남(경기안양) 30,000	권순복(경주) 30,000	권영락(성주) 30,000	권영준(청주) 30,000	권오성(대구동구) 30,000	권오현(대구 동구) 30,000	권재용(통영) 30,000	권중수(영주) 30,000	권태휴(상주)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경식(청주) 30,000	권도환(경주) 30,000	권병덕(논산) 30,000	권순철(서울성동) 30,000	권영락(안동) 30,000	권영창(창원) 30,000	권오성(서울강남) 30,000	권용구(태안) 30,000	권재철(영양) 30,000	권중오(서울구로) 30,000	권택관(경주) 30,000			
권경현(부여) 30,000	권돈호(옥천) 30,000	권병호(춘천) 30,000	권순치(대구) 30,000	권영록(서울중랑) 30,000	권영태(김해) 30,000	권오수(경기고양) 50,000	권용규(의성) 30,000	권재호(창원) 30,000	권중현(경기고양) 30,000	권평(서울송파) 30,000	권혁세(안동) 1,400,000		
권규석(서울송파) 30,000	권동기(안동) 30,000	권봉호(대구) 30,000	권순철(서울강동) 30,000	권영목(서울중랑) 30,000	권영호(부산) 30,000	권오수(서울관악) 30,000	권용기(서울강남) 30,000	권정길(봉화) 30,000	권진기(정읍) 30,000	권혁만(청주) 30,000	부산총친회 2,000,000		
권귀로(서울노원) 30,000	권동석(보령) 30,000	권부성(서울서초) 30,000	권순태(안동) 30,000	권영보(창녕) 30,000	*권영화 30,000	권오술(청주) 30,000	권용대(대구) 30,000	권정수(서울서초) 30,000	권진택(목포) 30,000	권혁복(경기고양) 30,000	수원총친회 360,000		
권규석(제천) 30,000	권동임(정읍) 30,000	권삼달(울산) 30,000	권순혁(진주) 30,000	권영복(경기고양) 30,000	권영환(서울은평) 30,000	권오식(안동) 30,000	권용덕(서산) 30,000	권정택(상주) 30,000	권창달(영덕) 30,000	권혁인(대구) 30,000	울산총친회(100부) 2,000,000		
권기득(포항) 30,000	권득상(제천) 30,000	권상숙(서울마포) 100,000	권승균(대전) 30,000	권영선(서울성동) 30,000	권영환(청양) 30,000	권오영(예천) 30,000	권용식(경주) 30,000	권정택(전주) 30,000	권충옥(서울마포) 30,000	권현수(서울강북) 30,000	장수총친회(10부) 200,000		
권기백(경주) 30,000	권득용(대전) 30,000	권상열(대구) 30,000	권승한(서울동작) 30,000	권영순(경기용인) 30,000	권영훈(서울송파) 30,000	권오익(경기안산) 30,000	권용호(파주) 30,000	권종렬(진주) 30,000	권태근(수원) 30,000	권호(원주) 30,000			
권기석(안동) 30,000	권만택(경주) 30,000	권상태(경기남양주) 30,000	권시현(광주) 30,000	권영암(군위) 30,000	권오균(안동) 30,000	권오종(광주) 30,000	권우상(창원) 30,000	권종우(서울중랑) 30,000	권태용(함양) 30,000	권호용(영양) 30,000			
권기준(경기의정부) 30,000	권명무(김해) 30,000	권세환(예천) 30,000	권영규(청주) 30,000	권영익(안동 가마리) 30,000	권오국(경산) 30,000	권오준(경기부천) 30,000	권윤근(경기연천) 30,000	권종필(구미) 30,000	권태은(경기양평) 30,000	권희경(인천) 30,000			
권기철(경기여주) 30,000	권명섭(경기양평)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영국(서울송파) 30,000	권영완(서울강남) 30,000	권오범(서울노원) 30,000	권오준(서천) 30,000	권윤기(성주) 30,000	권주연(안동) 30,000	권태인(대구) 30,000	권희송(서울성동) 30,000			
권길용(상주) 30,000	권명섭(대구) 30,000	권순구(원주) 30,000	권영길(영덕) 30,000	권영욱(상주) 30,000	권오범(예산) 30,000	권오진(안동 용상동) 30,000	권이성(청주) 30,000	권중규(안동) 30,000	권태정(안동) 30,000	권희주(순창) 30,000			
권녕체(서울중구) 30,000	권민집(대구) 30,000	권순기(서울동대문) 30,000	권영동(영주) 30,000	권영운(경기수원) 30,000	권오봉(대구) 30,000	권오철(청송) 30,000	권장순(청주) 30,000	권중길(포항) 30,000	권태혁(안동) 30,000				
권대춘(대구) 30,000	권병규(경기양주) 30,000	권순문(청주) 30,000	권영두(의령) 30,000	권영원(서울성북) 30,000	권오석(경기파주) 30,000	권오형(서울은평) 30,000	권재만(인천) 30,000	권중봉(거제) 30,000	권태휘(고령) 30,000				
												총 10,610,000원	
* 로 표시한 납부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